

# 꿈에 대한 생각

리춘미

오늘도 나는 어느날과 다름없이 아침출근길에 나섰다.

귀여운 아들의 손목을 꼭 쥐고 네거리갈림길에 이른 나는 아이의 책가방을 다시한번 꼼꼼히 메워주었다.

《오늘도 5점을 맞아야 한다.》

《걱정마세요, 엄마!》

아들의 학교길을 손저어 바래주고난 나는 몇걸음을 내짚다가 방향을 바꾸었다.

허구쁜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제는 달라진 공장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있는 실수였던 것이다.

공장에 이르니 마치도 신비로운 동화세계의 봄동산인듯 연분홍빛 새옷을 차려입은 아담한 건물에서 부드러운 자장가소리마냥 기계의 동음이 사릉사릉 울려나오고있었다.

금빛해살이 아롱진 창유리들이 정다운 웃음을 날리며 나를 반겨맞는것만 같았다.

작업장에 들어서니 재단공처녀들이 은방울 굴리는듯 한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며 기대를 닦고있었다. 한쪽에서는 나이지숙한 녀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작업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꿈같은 일이야. 불과 몇달새에 우리가 이런 멋쟁이공장의 주인이 되다니...》

뜨거움에 젖어있는 기대공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도 생각이 깊어졌다. 정말 꿈만 같다.

진렬대에 놓여있는 문양공과 색갈고운 어린이가방들을 정히 쓸어보느라니 꿈에 대한 생각이 저도 몰래 갈마든다.

꿈!

얼마나 많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있는 말인가.

가방공장 도안가라는 직업때문인지 나도 자주 꿈속에서 고운 책가방을 멘 아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가방이 마음에 드니?》

《참 좋아요.》

《아지미, 내 가방엔 소년장수를 그려달라요.》

《난 손풍금을 치는 꼬마꿈가방!》

아마도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것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할것이다. 물론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 역시 지금껏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것은...

찌물쿠는 삼복의 무더위를 헤쳐 머나먼 북변땅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시며 도안가인 나도 미처 몰랐던 재봉을 질적으로 깎지게 하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가방을 험하게 다루어도 실이 풀리거나 터져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도 세세히, 그리도 사려깊이 헤아려주신 그 로고...

아침마다 웃음을 함뿍 짓고 자식의 어깨우에 메워주던 책가방, 5점꽃 안고 돌아온 날이면 너무도 가볍게 내리우던 책가방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중에 그리도 무겁고 그리도 아프게 실려있는 줄 우리 어찌 알았으랴.

함북땅 천지개벽의 설계도 한복판에 아이들이 메는 책가방을 소중히 놓으시고 그 책가방을 위해 마음쓰신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파스한 손길이 어린 책가방의 뭉땡, 그것은 나라의 왕인 우리 아이들에게 부여하신 사랑이었고 희망의 푸른 하늘을 더 힘차게 날으라고 정을 담아 달아주신 축복의 나래였다.

해방후 연필문제를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는 첫 회의의 의정으로 내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야영소로 가는 아이들에게 손저어주시며 전신길 험한 산밭을 넘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원수님 아이들의 어깨우에 메워주신 행복뭉친 새 책가방.

그 사랑속에 불과 몇달새에 눈이 부시게 희한한 가방공장이 최상의 수준에서 꿈같이 일떠서는 북변땅의 기적이 창조되지 않았던가.

꿈!

어찌 보면 인류력사는 행복을 갈망하며 그 꿈을 안고 피어리게 뭉부림쳐온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하여 행복에 대한 꿈이 저절로 이루어졌던가.

이 시각에도 저 거치른 땅의 하늘아래서 사회와 부모들의 버림을 받고 학대의 채찍아래서 꿈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속절없이 스러져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재앙의 불길에 타버린 그 연약한 꽃잎들, 침략자들의 군화발에 짓이겨진 보금자리, 암흑의 광야를 정처없이 방황하는 류랑아들, 배움에 대한 꿈은커녕 생존의 여지조차 잃은 불행아들이 세계에 수억

을 헤아린다고 하니 어찌 햇빛밝은 내 조국의 고마움을 두고, 복동이 우리 아이들의 행운을 두고 내 눈물겨이 생각하지 않을수 있으랴.

그렇다.

이 나라 천만부모들의 모든 소원과 온 나라 인민들의 모든 꿈을 다 안으시고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행복의 창조자이시고 만복의 무릉도원을 창조하시는 빛나는 해님이시다.

꿈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건만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아이들을 왕으로 내세워주는 내 나라에서는 꾸면 현실로 되는것이 꿈이라고 나는 웨치고싶다.

부러워하라, 세계여.

가장 은혜로운 해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주

체조선의 꽃망울들을, 그 꽃망울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이 행복을 부러워하라.

마음껏 꿈을 꾸라, 복받은 아이들아.

너희들은 우리 나라의 왕들, 너희들의 해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동화세계인양, 행복감으로 한껏 부푼 내 마음인양 방송에서는 《조국찬가》의 노래소리가 환희로 이 울려퍼지고있었다.

...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

(함경북도 과학기술련맹 보급원)